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8주일

성 도메티오스 순교자

(제7조 • 조과 부활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2응송 '다볼산에서 변모하신' 178

제7조 부활 찬양송 82

구세주 변모 축일 입당송 178

구세주 변모 축일 찬양송 178

성당 찬양송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178

사도경 : 1고린토 1,10~17(봉독서183)

복음경 : 마태오 14,14~22 11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 정녀 마리아의 경건한 보호자 요셉 의인이 천사에게 들었던 소식은 우리 가슴도 기쁨으로 뛰게 합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마태오 1,21)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애로 우신 하느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시어 불리게 될 이름은 구세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예배와 여러 예식에서 구세주이신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테오토코스의 중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구체적인 신앙고백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태오 16,15)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16)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뭘까요? ‘정말 하느님은 계시는가?’란 의심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잘되는 일보다 힘든 일이 반복되면 ‘하느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의 자녀라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나?’라는 원망과 부정적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한 단면만 체험하고 알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양 단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편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믿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단정 짓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믿음이란 듣고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얇이 감동이 되고 고백이 될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주님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이란 주님을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더 크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어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복음으로, 성체성혈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단 두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신앙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교부들의 삶에서 배우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옛날에 한 무리의 도둑이 나이 많은 한 은둔 수도자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야겠다.”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가져가시게.” 도둑들은 수도자의 방 안에 있는 물건을 거의 모두 다 챙겨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숨겨져 있는 작은 가방 하나는 미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원로 수도자는 얼른 그것을 집어서는 도둑들에게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잊어버린 것이 있네!” 이 말을 들은 도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돈 가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빼앗아 가던 물건들마저 도로 다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6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만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돈과 재산, 소유물 등에 집착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분명한 악을 마주할 때에도 평화와 너그러운 아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둑들은 원로 수도자가 보여준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만이 강도짓을 하러 온 무법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도 상대방의 이익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오스 브리양차니노프 성인(1807~1867)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맑은 가을날 밤에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인해 빛을 발하는 맑은 하늘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들이다.’ 어떤 여름날 나는 수없이 많은 뚜렷한 파도에 뒤덮여 있고,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부두를 향해 불어대는 한 줄기 바람에 출렁이는 드넓은 바다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들이다.’ 내가 잘 조직된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 곧 서로 다른 음색의 소리들이 아른거리는 조화 속에서 단 하나의 찬양가를 노래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바로 교부들의 작품들이다.’라고.”

■ 여름 수련회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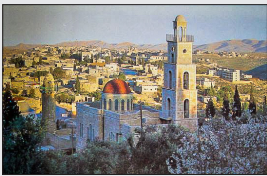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불멸의 양식'을 주제로 성체성혈 성사의 의미를 성서와 교부의 가르침으로 배웠습니다.

매일 프로그램으로 아침과 저녁 기도, 성서 공부, 영어 수업, 영적 주제 토론, 운동, 미술, 박물관 방문 등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친교를 나누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고해 주신 수련회 스태프들과 주방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지 사진 설명



베다니아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며 예리고로 향하는 올리브 산 동쪽 아래에 있다.

죽었던 라자로를 살렸던 곳(요한 11,38~44)이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나눌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곳(마태오 26,6~13; 마르코 14,3~9)이기도 하다.

라자로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 위쪽에는 그리스 정교회의 '라자로 부활 기념 성당'(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는 장벽 설치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수도원의 매듭을 이용한 기도 방법

기도에서 사용하는 기도 매듭(폼보스끼니)은 33마디, 50마디, 100마디, 300마디 등이 있는데, 수도자는 필요에 따라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올리는 '예수 기도'는 보통 100마디짜리를 사용하여 정해진 횟수를 기도합니다.

서원 전의 수련자는 기도 매듭을 300번 넘기며 매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손이 바닥에 닿게 허리를 굽히며 절을 합니다. 이 기도가 끝이 나면 이어서 온몸을 바닥에 엎드리고 큰 절을 50번 하는데, 이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느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서원 후의 수도자는 600번 마디를 넘기는 예수 기도를 올리며 허리 굽히는 절을 하고, 이어서 큰 절 100번을 합니다.

경륜 있는 수도자는 1200번을 넘기는 기도를 올리며 허리 굽히는 절을 하고, 큰 절 300번을 올리기도 합니다.

수도자들은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십자 성호로 사탄의 침범을 물리치고 허리 굽히는 절로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주님께 굴복시키고 성령의 은총으로 성화(聖化)되어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을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매듭은 수도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신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기도 매듭은 신자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혼돈되어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임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죄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을 확고히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들이나 성인들처럼 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하느님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파멸에서 구하고 현세에서의 축복과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